勢力이나 財力에 眩惑말라

愛國者選出토록

李大統領、選擧앞두고强調

이대통령은 五월에 실시될 민의원선거에 관하여 十一일 다음과같은 장문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금년五월 민의원 의원선거에대하여 권면하여 줄말이 몇가지 되는데 차차 가되오는 대로 몇가지씩 담화로 반포하여 혹 국가에 도움이있기를 바라는바인데 우선 한가지 알려주고자 하는것은 본래 국회는 세우는원칙이 그나라안의 각도와 각군의 도민과 군민들이 그도 군에서 가장 신앙있고 애국하는사람을 투표선정하여 국회로 들어가서 그 선거자의 이익과 주의를 대표해서 다른 도와 군에 대표들이 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대언통과(代言通過)시킬적에 우리도 우리대표가 우리를 보호 대언하므로 불공평 불이익한 안건을 통과하게된 우려를막고 전국적으로 공정한 안건이 판정되도록 하려는것이 목적이므로 물론자기대표들이가서 배양 자기도에 유익된것만을 결정하라는 법이없으며 또는 중요한 국가에관한 문제는 자기도나 군을 막론하고 국사를 위해서 만 극력하는것이 유일한 직책일것이다

모든 안건을 논쟁과 평의하는 자리에서는 자기들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도와 군을사랑하는 대표가 설명만이라도 할수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먼저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가장 중히 여겨 각각자기들의 사사이익이나 명예를 포기하여 국사의 이익만을 먼저 결정하는것이니 이는 국가의공동한 이익을 보호하여야 각도군의 이익을 보호할수있는 것이므로 국가에중대한문제가 생길때에는 정당이나 지방관계를 초월하고 국가의 안위와 화복만을위하여 작정하는것이 국회설립의 토대적목적인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원은 그지방을 대표하는것이니 그사람이 그땅에나서 그도와 그골의 사정을 남만치 알고 또 자기가난 도와 군을 사랑하여 보호하는 정심이있는 사람이라야 투표하는 사람이 믿고 선거하여 줄것이요 만일에 그렇지않아서 혹 세력이나 재력을 각지고 어디든지가서 사람을속여서 그네들을 대표하겠으니 선거하여달라고 하는것은 대표라는 명사와도 틀리고 또 실지상 지방이익을 돌아볼 여가도 없으므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법을개정하여 입후보자는 각각 그지방에 이와같은 연고를가진 사람만이 입후보할 권리가있고 그렇지않은사람은 입후보는 못하기로 내가 누누이 설명하여왔으나 우리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는 공심보다 사심이 더 긴중해서 옳고 그른것도 막론이요 민중의 시비도 불구하고 오직 생각하는것은 어떻게하든지 자기들만이 다시 피선되기로만 군회의원의 방책으로 알고있으므로 이위급한때에 국사가 이정도에 이른것은 참 통탄할 일이다

이번 민의원 의원선거법개정시에 정부에서 국회에 이조건을넣어 통과되기를바랐으나 국회의원들이 종시 사심대로만 주장하여 자기가 이곳에서 입후보를 못하든지 또는 피선된 희망이없으면 다른지방에가서 입후보할수있도록 만들어서 연고를 확대하여 작정하였으니 이것 한가지만가지고 보더라도 이국회의원중에는 다시 피선된 자격자가 몇사람이못되는줄도 아는바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한사람의 입후보자에대한 의견뿐이며 만일 민중이 또 국회의원에 뽑아서 국사를 어떻게한다면 나는 막지못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민중은 다 공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도와 싸울사람들을 선거하려는 성심을 가진터이므로 내가 권고하는바는 각각 도민과 군민들이 작정하고 자기도나 자기군에서 이와같은 연고범위에 합격된사람만을 선거한다는 공결로 민간에 널리 알려주어 민중이 그런사람은 선거하지말기로 작정만되면 어찌할수없을것이니 이것은 대표자가될만한 인격이 오직 그구역에서 나서 그도와 군을 사랑하며 그도와 군의 이익과 권리를 진정으로 위해서 직책을 다할사람만을 투표접수하고 그렇지않은자는 세력이많고 재정이많으며 자기친구나 파당이나 다 불계(不計)하고 거부하여 국회의 원칙을 실행하게 말들이야될것이다 또한가지 정부에서는 참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원수를 많이 제한하고 선거 운동비를 법으로 작정하기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또 민의원 선거법개정에도 이와같이 바랐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부인하였으니 이것은 이왕에도 누누이 말한바와같이 국회의원들을 모두 부자들 선거한다면 그국회는 옛날 제국주의시대와같이 양반들과 세력가들만이 정권을 잡게된다면 민주주의와 국반대이므로 우리헌법하에서는 부민과 빈민이 동일한 기회를 가져서 민의로써 그나라를 위하는 본의에 위반되는것이므로 부자도 피선될 권리를 가지고 또 가난한자라도 피선될권리를 일체히 만들어 동등기회를 주는것이 민주정치의 요소이다 어느나라든지 재력으로 선거자격을 판단한다면 민주정치에의 위반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세상에 부자중에도 좋은 사람이있고 또 빈자중에도 애국정심 가진인물이 있는것이니 그것을 동일하게 터놓아서 누구나 같은 기회를 갖게 만들어놓아야 실상 그나라의 인격자들 얻어서 국회의 높은 권리를 자유케 만들것인데 만일 재정으로 다 관단하게된다면 부자중에는 아주 못된사람들이 민중의정지를 못받으면서 재력으로 인심을 가지고 그자리에 올라간다면 국가의 일이 유리한것이 없을것이요 공정한 애국의 인격자들이 돈이없어서 피선될 기회가 없다면 이것은 국회를 세운 원칙에 위반이되며 나라에는 이만치 불행이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입후보자중 점잖은 애국자들은 재정이 있을지라도 투표를 매수하는 모양으로 그 전개는 더럽히지않으려고할것이요 또그런전개도 없고 인격도없이 무도반을 희망하면 돈있는사람과 피선될욕심으로 남에게 돈을 쓰는지해서 피선된후에 몇갑절은 빼주기로하고 피선된다면 이러한 비루한 수치된일이 없을것이다 우리애국남녀동포들은 지금 나라가 거의다 전멸되고도 담대히 일어나서 뒤에서는 애국정신을 위하여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않고 분투하며 앞에서는 우리애국청년들이 우리나라독립을위해서 생명을 영광스럽게 희생하고있는 이때에 민중은 무지몰각한 생각들로하여금 뒤에서 좀먹듯이하는 인물들은 투표하면 될수없는일이니 그러므로 이것도 정부에서 제안한바를 국회에서 거부하였으니 이것도 민중이 자결주의로 결심하고 선거운동비를 범위에 초과하여 피선된자는 민중이 우리대표자격이 없다고 선언하여도 어찌할수 없을것이다

지나간 四년동안에 정부에서 속박을 받고앉아서 한일도못하고 안한일을 해온것도 많은가지가 아니나 참고내려온것이니 이번에 또 나라관계를 무시하는사람을 뽑아서 이와같이 또된다면 우리민주정치앞길이 대단히 망창(茫蒼)한것이니 우리애국남녀동포는 각각 자기의 신조와 충심을 다해서 국가를 자기 사사이익보다 크게 여기는사람만을 택해서 국회로 신성한 국회도 만들어야될것이니 수리전국일반투표자에게 우선이만도 권유하는 바이다

내男便 내아들을 돌려보내라

八萬被拉者救出을絕叫

11日、家族들大會열고示威

六·二五사변과함께 수많은 시민들이 적구에게 끌려간지도 어언五년 그동안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손꼽아 기다리던 八만피납치인사들의 가족은 지난三월一일 휴전협정제五十九항에 의하여 실시된 실향사민교환에 한 오라기의 희망을 두고 자금은 북녘 어느 하늘밑 이름모를 장살안에서 신음하고있을 내아들 내남편 내아버지의 송환을 초조하게기다렸으나 끝내 공산측의 농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참았던 분노가 하늘을 치미는 피납치인사 가족들은 十一일 상오十시반부터 덕수궁 뜰에서 八만피납치인사 구출대회를열고 공산측의 흉계를 규탄하는한편 자유우방에호소하여 무력을 써서라도 납치인사를 구출하여줄것을 소리높이 외쳤다

이날 구출대회는 남녀노소 천여명의 피납치인사 가족이 모인가운데 양매륜(梁邁倫)여사의 눈물어린 기도로써 시작되었다 손자이름을 불러가며 땅을치는 노인들의 통곡소리속에서 올해 일곱살난 한계종(韓桂鍾)군의 『아버지 아버지 왜 돌아오지않으시나요 아버지가 뜰에심고가신 매화꽃이 벌써 저렇게 피었는데도 아버지는 왜 돌아오지않으시나요』하고 어린눈에 눈물을담뿍담고울부짖는 소리에 대회장은 일시통곡의수라장이 되었었다 한편 이날 이대회에서는 이대통령에게 감원서를 제출할것을 결의하고 다음과같은 선언문을 자유우방에 보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자 피납치인사가족들은 시가로 나와 시위행진을 계속하며 가족의송환을 소리높여 외쳤다.

宣言文

一、『유엔』군은 八만피납치인사구출에 강경한 대책을 세우라

二、실향사민이 아니라 전쟁포로이니만큼 공산측은 납치인들을 송환시키는데 책임을져야한다

三、피납치인을 억류함은 비전투원에대한 공산측의 범죄행위다

（사진은 동대회장 광경）

李大統領에謝過文

崔將軍戰鬪機事故로

『무스탕』전투기 사고사건에대하여 공군총참모장 최용덕(崔用德)중장은 八일자로 이대통령에게 장문의 사과문을 국방부장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였는데 동장군은 불가항력의 사고이었지마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말하였다한다

糧穀變質防止

社會部서對策樹立

十一일 사회부장관은 정부양곡의 변질을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서 CAC당국과 협의하에 종전까지 다달이 받고있던 구호미를 二·三개월분씩 一시에인수하고 도로시도 각시 도에 배정보관케할것이라고한다 이러한조치는 각시 도에 책임을부과시키고 경우에따라서는 적절한 처분을 할수있게 함으로써 양곡의 변질을 방지 하게하자는 것이라한다

收復地에歸農할수있다

金化·漣川·鐵原等六個郡에

【第五軍團司令部에서本社方樂榮特派員發】 동해안 수복지구의 원주민 귀농에뒤이어 十일 제五군단장 최영희(崔榮喜)소장은 三八이북 포천(抱川) 금화(金化) 연천(漣川) 철원(鐵原) 춘성(春城) 가평(加平)등 六개군의 동군단관하 수복지구 주민귀농을 허락하였다 따라서 六·二五사변전의 동지구 토지소유자는 물론 피난민까지라도 『향토를 찾아라』『향토를가꾸자』『향토를지켜라』라는 五군단의 방침에따라 작전에 지장이없는한 최대한도까지 군단장의 거주증명만으로 자기땅을찾고 혹은 주인없는 땅이면 논천평 밭 二천평씩을 얻어 경작하게된것이다 그런데 동군단에서는 약 四만五천명의 귀농을 예상하고 천막 기타 건축자재를 알선하리라한다

26師團旗授與式盛大

【中部戰線에서 方樂榮特派員發】 중부전선의 사창리(史倉里)에 포진하고있는 국군제廿六사단에서 十일 상오 十一시十五분 손(孫)국방부장관 백(白)제一야전군사령관 미제一군단장『부라인』중장 그리고 국군제二、五、六각군단장및 인접각사단장 그밖에 전장병이 참석한가운데 성대한사단기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選擧公告來月七日에

白長官、城北署問題等言及

백내무장관은 十一일 기자단회견에서 선거공고는 오는 四월七일에 행하여질것이라고 말하였다 동장관은 이어 성북경찰서의 소위 허위강도신고사건에도 언급하였는데 아직 조사중이라고 전제하고 그결과를 보아서 필요하다면 엄중처벌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경무관또는 총경급의 경찰인사이동이 늦어도 이달중순경엔 있을것이라고 동장관은 부언하였다

缺員選委員을補充

市서選擧에萬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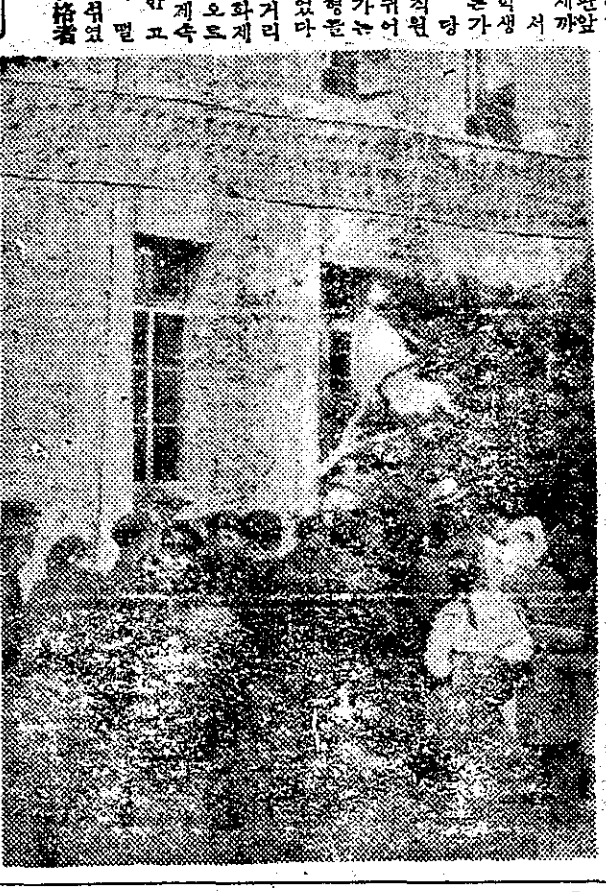
五·二〇민의원선거를앞두고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서는 十三일 하오두시부터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선거대책에관한 토의와 일부결원중인 시내 각구선거위원의 보충문제까지도 결정지을것이라한다 한편 十一일현재 결원위원중 보충된 위원은 아래와같다

梁顯彩(市內務局長)

南相一(合同通信重役)

喜悲線에설레이는校庭

市內前期各中學入試合格發表의그날



十一은 전기(前期)중학교 입학시험을 본 아동과 학부형들에게 마치 『운명을 선고받는날』같았다는 어느학부형의 말과같이 합격자를 발표하는 게시판앞은 합격의기쁨과 불합격이라는 설음이 뒤섞여서 물끓듯이끓었다 합격자발표게시판에서 자기와 아들의 이름을 발견한 아동과 학부형들은 단번에 희색이 만면하여 벼슬을받은듯으면서 등교할날부터 물었으나 게시판을 뚫어질듯이 봐도 자기이름을 발견치못한 아동과 학부형들은 그자리에 주저앉을듯한 표정이었다 멍하니 게시판앞에 언제까지 서있는학생이 있는가하면 당장교직원실에 뛰어들어가는 학부형들도 있었다

한편 이날 서울의 거리는 중학시험동락의 화제가 누구의입에서도 오르내렸고 동락의 화제속에는 금년엔 모모한 고관대작들의 아들이 떨어졌다는 소문도 뒤섞였다 (寫眞은 中學合格者發表場光景)

巨額의保證手票僞造

釜山서一萬弗交換後三十六計

자그마치 二백九十만환에 달하는 보증수표를 위조해가지고 九천七백「딸라」(美本土弗七千二百弗과美軍票 二천五百弗)와 한국은행권 三만八천환을교환한다음 행방을 감춘 사기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어왔다고한다 즉 경남찰국으로부터 치안국에보고된바에의하면 지난八일 오후 일곱시반경 부산시 국제시장(國際市場)에서 『딸라』상을하는 고완성(高完星)씨집에 약三개월전부터 안면이있는 약 四十五세가량 되어보이는 성명 미상자가 찾아와 상공은행 발행의 액면二백九十만환 보증수표(保證手票九十萬圜券一枚 八十萬圜券一枚 七十萬圜券一枚 五十萬圜券一枚)를제시한후 미화(美貨)와교환을 요청하기에 전기고씨는 동보증수표의액면에 해당하는 미본토불 七천二백「딸라」와 미군표二천五백「딸라」그리고 잔액에해당하는 三만八천환을 한국은행권으로내주고 그후 이를알아보니 위조된 보증수표임을 발견하게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해온것이라고 한다.

市서首都師團慰問

서울시에서는 十一일 수도사단장병에게 위문대九천 위문편지 一만통을발송하였다

全國篤農家十六名

農林部서表彰準備

농림부에서는 오는十六일 개최되는 독농가협의회(篤農家協議會)석상에서 표창된 독농가를 선출하기 위하여 각도로부터 집수된보고에 의거하여 이를 심사중에있다고한다 그런데 독농가협의회에는 각군에서 一명식의 독농가대표를 초청하는한편 동협의회에서 독실한농민 十六명을 표창하기로되었는데 그시상내용은 다음과같다

▲大統領賞 一名=賞狀및銀주전자

▲國務總理賞 五名=賞狀및製繩機

▲農林部長官賞 十名·賞狀및銀手鑑

七千餘點密輸

와이넨스會社事件드디어起訴

작보한바『와이넨스』상사의 밀수입혐의사건은 十일 하오늦게 관세법위반 혐의로 관계인사를 구속치않은채 기소되었다 윤두식(尹斗植)부장검사는 작보한바와같이 十일밤늦게까지『와이넨스』사건을 취조한결과 동회사의 국내지점장『후레드·미킨스』(二六)씨를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하였는바 기소장에의하면 동회사에서는 작년十一월하순외국산 시계二백二개를 비롯한 만년필 목걸이 보석 기타 화장품 기타 고급사치품등 도합六十三종목(七、二〇三點=時價六萬弗)에 달하는 외래품을 국세관을 통하지않고 미제五공군 수송기편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것이라하며 물품도 모조리 압수당하였다고한다 그리고『미킨스』씨는 아직 일본에서 돌아오지않은채 기소된것이다

勞務者賃金을支拂

서울시에서는 작년十二월二十四 二十七일및 금년一월十五 十九 二十二일자로 일선노무자로 동원된 五백五十九명의 노무자가족에게 一일 一백환씩을 계산한 임금을 각구청을 통하여 지급하리라는바 이번 지불되는 임금은 三월十일현재로 계산되었다고한다

市職業紹介所移轉

서울시에서는 종래 서대문구충정로(忠正路)에서 사무를보아오던 시직업소개소를 사정에의하여 시사회과내로 이전하였다고한다

中央直轄市라고改稱

釜山市昇格案、法司委를通過

앞서 국회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산(釜山)특별시승격에관한 두가지법률안은 十一일하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되어 금명간 국회본회의에 상정될것이라한다 즉 부산특별시 설치에관한법률안과 이에따르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十一일현재 법제사법 내무 양위원회를 통과하게되어 금명간에 국회본회의에서 심의되게된것이다 그런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서울에특별시가 있느니만큼 부산도 특별시로할수없어 중앙직할시(直轄市)로명칭을개정하기로 작정하였다한다 이로써 제헌국회때부터 문제가되어오던부산특별시 승격안은 이번 국회에서 가부를결정하게된것인바 원내에서는 별다른 이론(異論)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500個의人形等寄贈

美링크孃이韓國孤兒들에

四백八十七개나되는 많은 인형을 한국의『집없는천사』들에게 보내준 미국의 귀여운 처녀가있다 미국『루이지아나』주『뉴·오트레안스』시의「스잔나·링크」양은 四백八十七개의 인형과 장난감등 二十四상자의 선물을 한국의전재고아들에게 전해달라고 이번에 미국서 보내왔는데 이것을받은 서울지구『캐이·캐그』(K·C·A·C=유엔민사원조사령부)의 후생관『에이·디·베르손』씨는 서울지구「케이·캐그」사령관하이든대령과 함께 十一일하오二시에 제기동(祭基洞)화평(和成)영아원을 찾아 인형七十二개를 비롯해서 장난감과 과자등을 주어 어린이들을 즐겁게해주고 하오三시반경에는 필동(筆洞)의 충현(忠賢)영아원에가서 인형一백七十개와 장난감 과자등을주어 역시 어린이들의대환영을 받았다 그리고나머지도十二·三양일에 각고아원에 나누어줄것이라한다

（사진은 인형을 받고 좋아하는 고아들）

新興酒造脫稅事件

二千萬圜罰金求刑

적발된지 만一년여만에첫공판이 개정되어 [illegible] 거액의 벌금구형을받은탈세사건이 있다

즉서울지방법원제四호법정에서는 十一일상오十一시부터하오二시까지 四백七十여만환의탈세혐의로 작년四월二十일에기소된신흥주조주식회사(新興酒造=[illegible]字洞四五)사장 강익성(姜益聲 四六=不拘束)씨에대한 조세범처벌규칙위반사건의 첫공판은 김준원(金埈源)재판장 담당으로 개정되었었는데 강피고는 법인세를 미비못한 영업세 기타 수개종목의세금을 이중장부에의하여 탈세하였다는 검사의 기소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여 일사천리로 사실심리가끝나자 김준대(金埈大)검사는 세액인 四백七十여만환의 배인 二천三백八十여만환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美핏셔准將에「幸福의열쇠」贈呈

본국으로부터 전출하는 미군제四十[illegible]단장「핏셔」준장에게 김(金)서울시장은 十一일상오十시 시장실에서 행운의열쇠와 감사장을 전정함으로써 오랫동안의 그의 노고에 서울시민의 이름으로써 감사의뜻을 표하였다

雨中에汚物淸掃!

婁主任美擧에稱頌

【[illegible]永】요즈음 계속하여 내리는 봄비로 말미암아 시내는 때아닌 홍수사태까지일으켜 곳곳마다 불결한오물이 흘러내려 일반위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었는데 강(姜)지서주임은 소방대원을동원하여 우중을 무릅쓰고 대청소작업을하여 일반시민으로부터 찬양을받고있다한다

清大에大學院設置

【淸州】 청주대학교에 대학원이 설치케되었다 그동안 문교부에 신청중이던 청주대학교 대학원 설립인가는 지난三일부로 내려졌는데 이번인가로 동교에서는 오는四월부터 상학과(商學科) 법학과(法學科)의 두과에걸쳐 대학원을 개설하리라한다

勞務者待遇改善

朴社會部長官、賃金引上을言明

十一일 박(朴)사회부장관은 노무동원문제에 언급하여 노무자의 대우개선과 동원기간의 엄수문제를 단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현재 정부에서는 국군노무자에대하여 일당 九환의 임금을 지불하고있는데 이것으로서는 동원된 노무자가족의생계가 막연하므로 사실상 노무자동원이 불가능한형편에 있다는것이다 이에반하여「유엔」군노무자에 대하여서는 일당一백환의 임금을 지불하고있을뿐아니라 그중 五十五환을 한국정부에서 부담하고있는데 앞으로는「유엔」군노무자에대한 임금을 八군노무처에서 전적으로 지불하게하고 대신 한국군노무자에게도 일당 백환의임금을 지불할작정이라고한다 그런데 앞서 박(朴)사회부장관은 작년二월에 동원된 노무자들이 아직도 동원해제

亞洲競技力道選手

廿一日에選拔戰

대한역도(力道)연맹주최 대한체육회주관인 제二회「아시아」경기대회파견역도선수선발대회는 오는二十一일상오十시부터 서울초동(草洞)한국체육관에서 개최키로되었는데 대표자회의는 二十일하오一시 동체육관에서 열리리라한다 그런데 동대회의 참가자격자는 추상경기(推上競技)제一회 시기중량(試技重量)에있어 각급에해당하는중량을 들수있는자에 한하리라는바 그각급에 해당하는 중량은 다음과같다

「가」빠ㄴ탐級=七五kg

「나」페더級=八五kg

「다」라이트級=九〇kg

「라」미들級=九五kg

日氣豫報 12

▲서울地方 西風乃至北西風이불고 흐리겠으나 낮한때맑겠다 (十一日) 最高氣溫十一度五分 最低氣溫三度七分

▲釜山地方 北東風이불고 흐리겠으며 아침한때 비가 오겠다

▲日出=六時四九分 ▲日沒=一八時三五分

라디오 13日

▲八·一五「생활과애정」▲八·三〇 동요 정인준 ▲一一·一五 충정유치원 ▲一一·一五 극「대추나무선마을」백악기작 ▲一一·四五「사범교육의신구상」원홍균 ▲一八·〇〇 무엇일까요 ▲一八·一五「즐거운한때」▲一八·三〇 좌담회 ▲一九·一五 가정오락의샘터 ▲二〇·〇〇 스무고개 ▲二〇·三〇 마음극 ▲二三·三〇 이북동포에게보내는시간

演藝案內 十二日公演中

▲市公館 演劇『銀粧刀』▲首都=映畫『第三의사나이』▲中央=映畫『세세이쇼』▲鷄林=演劇『多情佛心』▲永寶=樂劇『殘花의淚』▲平和=演劇『달둥매해돋는날』▲東洋=映畫『硝煙』▲國都=映畫『戀路』▲文化館=映畫『싱가폴旅行記』▲京畿=樂劇『郞君에게바친至誠』▲城南=映畫『칼맨』▲光武=樂劇『男妹는다름이다』◇…仁川 ▲愛館=樂劇『[illegible]花桃』▲東邦=映畫『[illegible]』▲仁映=映畫『[illegible]』▲文化=映畫『마음의行路』

◇…중학교입학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합격자는 입에는 웃음빛이 돌지만 떨어진측은 불평이 연발 ◇…「그렇게 든든히 부탁을 했는데 떨어지다니…」「부탁이 뭐요 걷어리서 모자랐지」부부들의 싸움까지 일어나는판이다 ◇…부탁이 부족(不足)했다면 괘씸한 이야기지만 봉통(不通)이었다면 제법 바로 잡혀가는셈 ◇…바라건대 모두 통만 됩소서.

記事폭주로 今日小說休載

第四回 全國바둑選手權大會
○地方豫選大會 三月二〇、二一日兩日間
○本大會 四月三、四、五日三日間
○選手權確定戰 四月一七、一八、一九日三日間
○豫選大會開催場所 釜山市光復洞 釜山棋院 / 서울中區明洞 韓國棋院
○本大會및選手權確定戰
○選手權確定棋譜發表 朝鮮日報獨占連載
主催 韓國棋院·朝鮮日報社

賣買
製菓機械 電熱機賣渡
日本井上式 一五K 五K(二台)
用途 同製品 大量生産할수있는機械
서울市鍾路區堅志洞 高光屋製菓店內 一一〇

求婚
本人은 [illegible] 希望者는 [illegible]
連絡處 水原市八達路三街 朝鮮日報水原支社

求食母
十七·八歲 [illegible]
電話②五四八一

求人
[illegible] 十二·三歲 十五·六歲前後
電話②四〇四七

尋人
[illegible] 서울特別市鍾路區 [illegible]
黃海道平山郡南川邑 金炳天
右者反共靑年으로 [illegible]

集合廣告
黃海道鳳山서살던 梁德鳳은 [illegible] 連絡하여주시면 [illegible]
卞洪吉方 弟 梁連鳳

新入生募集(後期)
一、募集人員 中學校 第一學年 一八〇名 / 高等學校 第一學年 一〇〇名
一、願書接受期日 中學校 三月十四日限 / 高等學校 三月二十四日限
一、願書交付및接受處 서울特別市鍾路區水標洞一〇二本校
其他詳細한것은本校에問議하시압
明星女子中·高等學校

新入生募集(後期)
一、募集人員 中學校 一八〇名 / 高等學校 一六五名
二、願書마감 中學校 三月十六日正午 / 高等學校 三月廿四日下午五時까지
一、試驗日字 中學校 三月二十六日九時 / 高等學校 三月二十七日九時
一、所在地 서울鍾路區壽松洞九五
中東中高等學校 本校舍

購買入札公告
本處에서 左記와如히 購買入札을實施함
記
一、品目 船舶補修資材
一、規格및數量 本處購買局機材課에要問議
一、入札時日 檀紀四二八七年三月二十三日下午二時正刻
一、入札場所 本處購買局機材課
一、入札保證金 國貨拾四萬貳千圜整現金保證手票又는國債로入札前日까지本處에納付할것 但現物은取扱치않음
一、供給條件 C·I·F 本 PUSAN PORT
一、引渡期日 信用狀開設後 三箇月以內
其他 詳細는本處購買局機材課에問議할것
檀紀四二八七年三月九日
外資購買處長

新入生募集 晝夜(後期)
募集人員 機械科 電氣科 各五五名
志願磨勘 三月二十四日
筆答考查 三月二十六日
入許可者發表 三月三十一日
서울特別市永登浦區
永登浦工業高等學校

變更 學生募集要領 男女 (修業年限四年制)
一、聯合考試合格者가아니라도應試할수있음
一、願書接受磨勘 三月二十九日까지
一、試驗期日 三月三十一日
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山一〇
서울漢醫科大學

中學生募集(速成)
一、募集人員 第一學年 一二〇名
一、願書接受 自三月五日至二十日
⊙英語、數學、中國語科 各科生募集
一、開講 三月二十一日
其他詳細來問
東大門區崇仁洞 (東廟앞)
興仁高等學館

晝夜 學生募集 後期
一、募集人員 中學校 晝 一學年 一八〇名 二·三學年 若干名 / 夜 一·二·三學年 各[illegible]名 / 高等學校 夜 [illegible]
一、願書接受 中學校 三月十四日限 / 高等學校 三月二十四日限
서울特別市西大門區里門洞二街
均明中學校
均明高等學校

JUSTUR CO INC.
Import & Export
1133 Broadway, NewYork, N.Y.,U.S.A.
OFFERS:
Used Clothes, Gen. Merchandise • direct from mills.
REPRESENTATIVES INVITED.
Ask for quotations
Write English
工場에서直輸出
中古洋服·一般雜貨
去來希望者는 上記住所로 至急連絡하시기바랍니다。

本社廣告部直通 電話②四四六九

龍山支店國庫代理店業務取扱에際하여
敬頌 時下陽春佳節에 諸賢의 日益淸安하심을 仰賀且祝이오며 弊行에對한 平素의 格別하신 愛顧를 感銘하여마지않나이다 就悚 當店은 從來國庫收納事務를取扱하여왔아온바 今般 다시 韓國銀行과 國庫代理店契約을締結하고 去三月一日부터 國庫金의 受拂事務를 取扱하고있아오니 諸賢의 倍前의 愛顧利用을 仰望하옵고 玆에 謹告하나이다
檀紀四二八七年三月 日
韓國商業銀行龍山支店

世界的으로有名!!
美國파브코製造會社製品
石綿세멘트製品·아스팔트及同
防水用品·建築材料·페인트·石墨
材料·리노리움·루프워링·補塡耐
熱製品·土木用管類·고무製品其他
右商談에應합니다
韓國總代理店
E·J그리퍼스會社 韓國支店
朝鮮日報社빌딩一層 電本五七六〇

마니라「아바카」
極最近價格表到着
FOA資金獲得의機會는여러분에게開放되었읍니다
信用있고確實한『오파』를願하시면
바―크레이 韓國支店으로
서울特別市太平路一街六一 朝鮮日報社빌딩內 (電②4451)

時局大講演會
時日 三月十三日(土)午前九時半
場所 市公館 (一般無料公開)
==演題및演士==
1,伯林四外相會議의結果와壽府會談의展望 外務部次官 曺正煥閣下
2,太平洋同盟과極東反共體制의將來 民議院議員 外務分科委員長 黃聖秀先生
3,韓國의將來와 國民의 覺悟 [illegible]大學長 서울大敎授 李瑄根博士
==音樂演奏==
海軍政訓音樂隊 管絃樂과合唱
國防部政訓部 主催

李璐熙氏夫人 全州李氏以宿患三月十一日午前十一時別世玆以告訃
永訣式 三月十三日
永訣式場 서울市西大門區[illegible]里洞二街二〇〇의二
葬地 金浦郡金浦面豊舞里先塋
嗣子 [illegible]
孫 [illegible]
婿 [illegible]
孫婿 [illegible]
護喪 [illegible]